

產業勤勞者의 保健知識 및 實踐水準과 이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

南 峴鉉* · 崔 相復**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대구보건전문대학)

목 차

- I. 緒論
- II. 研究方法
- III. 分析結果 및 考察

- IV. 要約 및 結論
- 參考文獻

I. 緒論

1. 研究의 背景

産業社會의 構造가 擴散되고 있는 우리나라로
1962년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近代化 作業이 繁忙화되고 社會發展은 물론所得
도 급격히 向上되었다.

산업현장은 施設이 大型화되어 生產이 大量化되는
소비현상에서 製品은 多樣化되어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勤勞者 역시 크게 增加하였다.

그結果, 근대에 이르러 貧困의 疾患은 減少하였으나 대신 豊饒의 疾患이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들의 職業性 疾患과 傷害問題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課題로 擡頭되고 있다¹⁾.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豊富한 良質의 勞動力에 依存해 왔으며 앞으로의 經濟發展도健全한 労動力에 比重을 두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健康確保 問題는 단순한 근로자 개개인

의 문제가 아닌 時急한 國家的인 問題라고도 할 수 있다^{2~4)}.

이러한 문제의 對策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勤勞基準法, 産業災害 補償保險法 등의 立法措置로 시작하여 1961년 9월 11일 勤勞保健管理規定, 1981년 産業安全保健法의 制定과 수차례에 걸친 改正 등으로 勤勞者의 健康確保에 對處해 왔으나 산업의 발달은 앞서가고 이에 따른 政府와 國民의 産業保健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으나 勤勞者의 健康確保에 대한 현장의 産業保健問題는 지지부진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상이 누적되어 왔는데 원전레이온 사건등이 터지면서 社會問題화 되기에 이르렀고 그에 對應한 근본적인 對策이 要求되는 時點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大企業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나름대로 刮目할만한 여러가지 措置를 講究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법의 규정을 따르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保健管理者를 配置할義務가 賦課되어 있지

않은 50인 이하의 零細事業場은 전국 사업장의 85% 나 되며, 근로자수에 있어서도 전근로자의 30%가 넘는 데도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많은 問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健康은 威脅을 받고 있다⁵⁾.

이러한 많은 근로자들이 健康에 대한 保障을 받지 못하고 있는 現實은 근로자들의 健康을 疏忽히 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으나 事業主들의 理解不足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재해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사업장에서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保健管理者는 產業醫, 產業看護師, 產業衛生管理技師, 環境大氣技師 등으로 分類되고 있으며, 이들은 對象事業場의 特性과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保健醫療要求를 正確히 把握하고 있어야 하며, 그 산업장의 構成員의 한 사람으로서 接近하는 態度가 重要하다. 業務의 形態로는 醫務室의 診療機能이 아닌 豫防的 次元의 業務가 主가 되도록 계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

그 외에 앞으로 닥쳐올 Uruguay Round, Green Round, Blue Round, Technical Round 등을 積極적으로 對處하는 姿勢가 必要하다.

이는 產業安全保健 및 環境에 劃期的인 變化를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근로자들에게 보다 快適한 作業環境과 安全한 勤勞條件를 確保해 주지 않으면 國際競爭에 뒤지는 시대가 到來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또한 Green Round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保健教育을 徹底히 하고 作業環境內의 有害因子를 作業자의 生命과 건강에 해롭지 않은 水準으로 줄이고 有害因子의 作業環境基準을 先進國 水準에 걸맞게 強化하거나 새롭게 設定하는 것이 時急하며, 이러한 일들은 國際화의 趨勢이고 社會發展의 자연스런 變化이며 企業의 立場에서는 順理的으로 受容해야 할 命題이다⁷⁾.

특히 산업의 高度化가 활발한 '90년대는 人本爲主의 產業風土擴散 등으로 재해문제가 勞使間의 主要

爭點으로 擡頭될 것이豫想됨에 따라 作業病 예방 등 產災豫防事業強化的必要性이 과거 어느 때보다 強調되고 있다^{8,9)}.

사업장 보건관리사업의窮極的인 목표는 근로자의 健康水準을 向上시켜 事業場을 健康하게 하고 生產性을 提高하는 것이다.

이를 效率的으로 充足시키려면 근로자들의 現在의 健康에 대한 知識과 實踐能力 그리고 건강에 대한 身體的, 精神的 水準을 把握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나 現在까지 근로들의 知識·形態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등의 分析에 대한 研究報告書가 거의 없는 未備한 實情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체 근로자들의 健康意識 行態水準을 調査하고 業務 및 事業場 環境과 勤勞者들의 特性, 健康行動 그리고 產業保健教育이 근로자들의 健康水準에 어떤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分析하고자 하였으며, 이 결과는 앞으로 발전적인 사업장 보건관리의 政策立案에 現實的인 基礎資料로 活用할 수 있을 것을 期待하면서 本研究를 遂行하였다.

2. 研究의 目的

本研究의 目的是 우리나라 산업장 근로자들의 保健에 대한 意識行態 水準을 把握하고 그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과 健康生活이 健康水準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므로서 勤勞者를 위한 保健教育 프로그램 開發 및 關聯 政策樹立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있으며 細部目的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知識 및 實踐水準과 一般特性 및 心理的 變數間의 關聯性 分析
- 2) 個人特性 變數와 業務 및 作業環境 滿足度 등 心理的 變數와 健康行爲 및 健康水準과의 關聯性 分析
- 3) 건강에 대한 知識 및 行爲(實踐)水準과 健康水準과의 相關性 分析
- 4) 健康知識과 實踐水準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과의 相關性 分析

II. 研究方法

成된 設問紙를 回收하였다.

1. 調査對象 및 期間

本研究의 調査對象은 우리나라 全國에 工業團地가 많이 있는 京畿, 仁川, 光州, 大田, 大邱, 蔚山, 浦項, 馬山, 昌原 등 8개 지역의 產業場 勤勞者를 對象으로 하였으며 23개로 中分類된 製造業種 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纖維業(섬유제품 제조업), 木材業(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化學業(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次金屬 및 組立金屬業(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제외) 등 5개 업종을 300人 未滿, 300人에서 999人 以下, 1,000人 以上 사업장으로 區分하여 1~2개 사업장 씩 총 30개 업체의 3,000명을 無作為 標本抽出 (Random Sampling) 하였다. 調査期間은 1993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다.

2. 調査方法

本研究의 調査員은 보건대학원생 4명을 選拔하여 現地 出張調査케 하였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事前에 調査의 意義와 目的, 面接技術, 符號와 要領 등 조사에 대한 實習을 教育하였다.

각 사업장의 保健管理室 또는 關聯業務 擔當者的 協助를 얻어서 設問書를 나누어 준 뒤 설명한 후 完

3. 分析方法

1) 分析模型

본 연구의 基本 假定은 근로자의 健康水準은 個人의 人口·社會·經濟的 特性과 職務와 關聯된 心理的 變數에 의해 影響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健康知識 및 實踐(Health Knowledge & Practice)과 健康行爲(Health Behavior)가 健康水準(Health Level)에 影響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假定을 前提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健康水準에 影響을 미치는 개인의 特性變數와 心理的 關聯 變數가 健康知識 및 行態 그리고 健康生活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고 나아가 건강생활이 개인의 健康水準에 어느 정도 影響力を 行使하는가를 分析하였다.

이러한 諸變數가 健康水準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것은 個人變數, 心理的 變數, 健康知識 行態變數, 健康行爲變數 등 각각이 單獨으로 作用할 수도 있겠으나 어떤 경우는 이들 몇 개의 变수が 相互作用하여 함께 影響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關係를 考慮하여 본 연구의 分析對象이 된 諸變數는 Fig 1과 같은 模型(關係式) 속에서 觀察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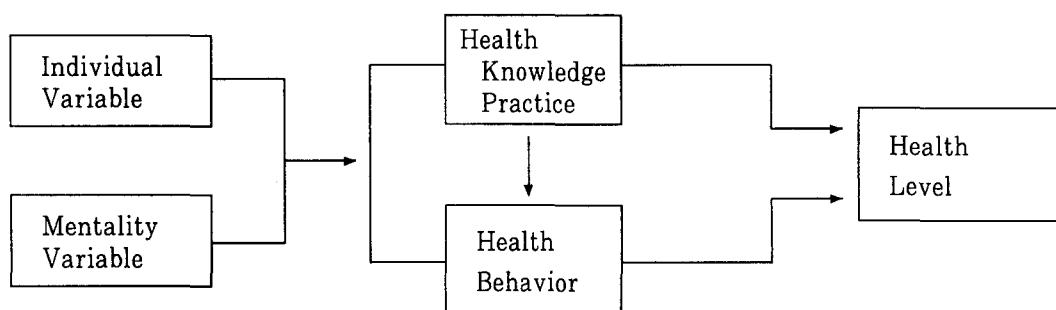


Fig 1. Casual Model of Analysis

(1) 分析의 모델 構築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은 Causal Model¹⁰⁾을 설정하여 調査對象者の一般特性과 心理的特性이 보건에 대한 知識 및 實踐水準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知識 및 實踐水準이 保健行爲의 實踐과 健康狀態水準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① 個人的 人口學的 및 社會學的 特性變數와 作業環境 및 保健教育 關聯 등 心理的 變數가 보건의 知識 및 實踐變數에 그리고 保健行爲變數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② 보건에 대한 知識 및 實踐變數가 保健行爲 實踐과 個人的 健康狀態 水準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개인의 보건에 대한 知識, 實踐水準은 人口學的, 社會經濟的 特性變數와 作業環境, 業務滿足度, 「스트레스」 등 心理的 變數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保健行爲 實踐 水準에 영향을 주며 이를 변수는 종국적으로 健康狀態 水準에도 영향을 준다는 假定을前提로하였다¹⁰⁾.

Fig 1의 Model 내에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는 線形(Linear)이고 因果關係(Causal Relationship)가 있으며 Model 내에서 변수들 사이에 相互因果關係(Reciprocal causation)가 없는 偏側因果關係(Recursive)만 있는 것으로假定하였다¹⁰⁾.

2) 變數의 選定

健康水準에 影響을 줄 수 있는 獨立變數를 選定하는데 合理的인 根據가 必要하다. 더구나 從屬變數인 健康水準을 測定할 수 있는 合理的인 單一指標가 없기 때문에 全般的인 健康水準을 代表할 수 있는 變數의 選定에는 어려움이 많다.

(1) 從屬變數

全般的인 健康水準을 測定하여 그 水準을 評價한 文獻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더구나 健康評價範圍는 그 種類와 範圍가 넓어 한 두 개의 項目으로서 인간의 健康水準을 說明한다는 것은 非合理的

이다.

근로자의 健康水準評價는 醫師의 진단에 의한 身體檢查로 可能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無作為 標本抽出(Random Sampling)된 근로자의 身體檢查를 별도로 한다든지 그들의 身體檢查 記錄을 찾아서 對照分析 하든지 하여야 하는데 現實의으로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건강수준은 조사대상자 本人의 健康狀態에 대한 主觀的 評價와 痛病에 의한 缺勤回數 그리고 醫療機關 訪問回數 등 間接的으로 判定할 수 있는 項目을 選定하였다.

(2) 獨立變數

본 연구에서 獨立變數는

- 가) 個人特性
- 나) 保健知識 및 實踐特性
- 다) 健康行爲特性

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保健知識 및 實踐變數와 保健行爲變數는 媒介變數로도 作用한다.

근로자의 個人特性 變數는 人口學的 變數, 社會·經濟的 變數, 心理的 關聯變數로 나누었다.

가) 個人 特性變數

① 人口學的 變數

- 勤勞者의 性別
- 年齡

② 社會經濟的 變數

- 教育水準
- 所得水準
- 勤務年數

③ 心理的 關聯變數

- 스트레스
- 作業 疲勞度
- 業務 適性 滿足度
- 作業環境 滿足度
- 保健教育 滿足度

나) 保健知識 및 實踐變數

- 職業病에 대한 知識 및 實踐

- 作業環境에 대한 知識 및 實踐
- 結核傳染에 대한 知識 및 實踐
- 장티부스傳染에 대한 知識 및 實踐
- 바퀴벌레의 疾病 傳播 知識 및 實踐

다) 健康行爲變數

- 飲食習慣
- 運動
- 飲酒
- 吸煙
- 健康診斷
- 保健教育 態度
- 健康生活(自家判斷)
- 一日三食(規則的인 食事)

이들 變數를 선택한 기준은 이론적이거나 실제 他研究資料에 근거하였다.

개인은 태어나서 成長하면서 나이를 먹게 되고 나아가 높아갈수록 가정과 사회에서 他人과 接觸하는機會가 많아져서 새로운 知識을 習得하고 態度 形成과 行動에 變化를 가져온다. 개인의 教育程度는 健康知識 習得과 實踐 및 健康生活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所得水準 역시 健康知識, 態度, 實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變數로 하였다^{11~15)}.

勤務年數는 職業과 作業環境, 職務教育 등과 關聯이 깊기 때문에 健康知識, 實踐 및 健康生活과도 關聯이 있는 變數이다.

또한 「스트레스」와 作業疲勞는 健康行動이나 健康生活과 깊은 關聯이 있으며^{16~23)} 業務 및 作業環境 滿足度 역시 근로자의 作業意慾과 「스트레스」와 關聯이 있어 健康行動과 健康生活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는 變數로 알려져 있다.

우리 人間은 日常生活을 하면서 健康에 關心을 가지고 健康行爲(Health Behavior)를 하게 된다. 많은 健康關聯 行爲가 있지만 一般的으로 飲食習慣, 運動有無, 飲酒, 吸煙, 定期的인 健康診斷 有無 그리고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는 健康에 影響을 미치는

重要한 變數로 알려져 있다^{24~28)}.

勤勞者들이 家庭을 이끌어가는 人力이라는 점에서 保健教育時 그 教育의 傳播效果가 클 수 있다고 했으며 勤勞者들은 다른 集團에 비해서 保健education 프로그램에 參與하는 率이 월등히 높다고 하였다²⁹⁾.

또한 Girdann은³⁰⁾ 保健教育이 事業主에게는 作業生産量을 增大시키고 財政의인 效果를 가져다 주며 勤勞者 個人에게는 藥物, 吸煙, 飲酒, 스트레스와 關聯 問題들을 줄여 준다고 했다.

每日 食事を 거르지 않고 規則的으로 하루 세끼를 食事하는 것이 健康에 가장 좋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食餌療法 등으로 1日 2食이 좋다는 設도 있는데 이는 食餌療法의 하나로서 特定한 境遇라고 보고 本 研究에서는 1日 3食의 概念을 規則的인 食事를 意味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全般的으로 自身이 健康生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主觀的인 答辯을 하도록 하여 自己 判断에 의한 健康生活의 實踐有無도 健康水準과 關聯이 있다고 보아 이를 健康行爲에 대한 하나의 變數로 選定하였다.

健康水準은 保健水準 또는 Health Status, Level of Health, Level of Health Status로 表現될 수 있으며 保健(健康)指標(Health Index, Health Indicator)의 意味도 있다.

健康指標는 人間의 個人, 家族, 社會 또는 人口單位의 健康水準이나 特性을 說明하는 數量的內容으로多少 縮小된 限界의 概念이라고 생각되지만 保健指標는 여러 單位의 人間의 健康 뿐만 아니라 이에 關聯되는 여러 사항 즉 保健政策, 醫療制度, 自然環境, 人口規模 또는 國民의 保健에 대한 規範과 價值觀 등 여러 内容의 水準이나 構造 또는 特性까지를 說明할 수 있는 擴大된 内容의 數量的 크기로 생각된다^{31~32)}.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個人의 健康狀態와 關聯하여 主觀的 健康狀態와 缺勤有無 그리고 病·醫院 및 藥局訪問을 健康水準으로 하였다.

產業場 勤勞者를 對象으로 한 保健education의 效果에

관한 調査에서 保健教育 프로그램이 産業場에 기여하는 利點은 缺勤率 低下로 生産性 向上과 費用節減의 效果가 있다고 하였다^{33~39)}.

原則的으로 健康水準은 病·醫院에서 正確한 診斷에 의하여 測定되어야 하겠으며 調査勤勞者의 健康記錄簿를 設問과 聯關시켜 分析하는 것이 理想의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記名式으로 할 경우 正直한 答辯을 얻을 수가 없으며 産業場의 非協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健康狀態와 缺勤有無 그리고 病·醫院 및 藥局 訪問回數 등으로 間接의 方法을 사용하여 勤勞者 個人の 健康水準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點이 本 研究에 있어서 하나의 制限點이라 하겠다.

(3) 分析方法과 問項 判別力 檢查

가) 分析方法

본 논문의 분석은 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適用하였으며 保健에 대한 知識 및 實踐水準의 測定問項으로 選定된 10개 문항은 職業病, 傳染病, 有害昆蟲, 作業環境 등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이고도 기초적인 보건에 대한 것으로 문항 각각에 같은 比重(weight)을 주어 同一配點으로 하였다(Table 2). 즉 保健에 대한 知識 및 實踐各問項에 1點씩 총 10點을 滿點으로 하여 이를 上, 中, 下로 나누어 分析하였다. 0~4점을 下位水準, 5~7점을 中位水準, 8~10점을 上位水準으로 구분하였다.

相關關係와 重回歸分析時 各 變數의 點數는 다음과 같은 形態로 하였다.

Table 1. 變數別 點數 配點表

變數型	分類	點數	變數型	分類	點數
1. 年齡(歲)	≤19	1	4. 健康生活(自家判斷)	아주 잘 하고 있다	5
	20~29	2		약간하고 있다	4
	30~39	3		보통이다	3
	40~49	4		하지 않는 편이다	2
	50≥	5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
2. 教育水準(年)	≤ 6	1	5. 保健教育態度	保健教育은 필요하다	3
	≤ 9	2		잘 모르겠다	2
	≤ 12	3		保健教育은 필요없다	1
	≤ 14	4	6. 作業滿足度	매우 滿足한다	5
	≤ 16	5		약간 滿足한다	4
3. 健康狀態(自家判斷)	매우 健康하다	5		보통이다	3
	健康한 편이다	4		약간 不滿足이다	2
	보통이다	3		매우 不滿足이다	1
	健康하지 않은 편이다	2			
	매우 나쁘다	1			

나) 問項 判別力 檢查(Item Discriminating Power Test)

본 연구에서 보건에 대한 知識, 實踐水準을 測定하기 위하여 使用한 問項의 妥當度(Validity)를 알아보기 위하여 問項 判別力を 產出하였다.

問項 判別力은 문제의 妥當度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應答者들의 點數의 上位集團과 下位集團의 能力의 差를 그 問項이 얼마나 銳利하게 判別해내느냐 하는 能力程度를 말하는 것으로 問項判別力은 判別度 指數(Discriminating Power Index)로 表示되고 算出公式은 다음 두 가지가 흔히 사용되나 本研究에서는 (2)의 公式을 사용하였다.^{40,41)}.

$$D.I = \frac{U-L}{N} \quad \dots \dots (1)$$

$$U.L.D.I = \frac{R_U - R_L}{f} \quad \dots \dots (2)$$

D.I: 判別度 指數 U.L.D.I: 上下位 判別度 指數

R_U: 上位集團의 正答者數 R_L: 下位集團의 正答者數

f: 各 集團의 應答者數

일반적으로 上下 集團을 각각 27%로 하는 것이 通例이며 問題의 判別度 指數는 적어도 .20 이상은 되어야 判別力이 있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의 判別度 指數는 0.63~0.75로서 .20 이상이 되어 判別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ntents of Questionnaire Items by KP on Health

Field	Item	
	Knowledge (K)	Practice (P)
1. Occupational health	1) Cause of occupational disease	2) Using protection instrument
2. Work environment	3) Knowledge on measurement of work environment	4) Taking proper action against hazardous result after environmental measurement
3. Infection of tuberculosis	5) Knowledge on cause of tuberculosis infection	6) Taking preventive action against disease
4. Infection of typhoid	7) Knowledge on cause of typhoid infection	8) Drinking only boiled water
5. Effect on cockroach related to Health	9) Knowledge on health hazard by cockroach	10) Taking action on elimination of cockroach

Table 3. Result of Discriminating Power Test of the Validity of Questionnaire

Items	No. of Correct Answer		U.L.D.I.*
	Upper	Lower	
1	1939(57.1)	272(8.0)	0.75
2	1966(57.9)	305(9.0)	0.73
3	1012(29.8)	203(6.0)	0.67
4	1705(50.2)	239(7.0)	0.75
5	1734(51.1)	327(9.6)	0.68
6	1566(46.1)	351(10.3)	0.63
7	1665(49.0)	342(10.1)	0.66
8	1881(55.4)	378(11.1)	0.67
9	1860(54.8)	351(10.3)	0.68
10	1731(51.0)	342(10.1)	0.67

* U.L.D.I. : Upper Lower Discriminating Power Index

III. 分析結果 및 考察

1. 調查對象勤勞者의 一般的 特性

1) 人口學的 特性

(1)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應答者的 性別分布는 男子가 2,475명으로 전체 3,396명의 72.9%를 차지하였고, 女子는 27.1%였다.

(2) 年齡分布는 30~39세 群이 36.0%로 가장 높았고, 20~29세 群이 33.9%, 40~49세가 19.7%의 순이었으며, 50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의 3.7%인 126명이었다.

(3) 結婚狀態별 분포는 既婚者가 57.4%였고, 未婚者는 40.5%였으며 死別, 離婚 등이 2.1%였다.

2) 社會經濟的 特性

(1) 經濟狀態는 各 個人的 소득과 생활수준을 감

안하여 自家判斷에 의하여 上, 中, 下로 區分하였는데 中流層이 54.8%로 과반수를 넘었고, 下流層이 43.2%였으며, 上流層이라고 判斷하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하였다.

(2) 勤務年限

產業場에 勤務年限은 5~9년이 33.7%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이 26.5%로 다음이었으며, 1~3년이 18.9%, 1년 미만은 10.8%, 3~5년이 10.1%의 順이었다.

(3) 教育水準

응답자의 教育水準은 12년 교육기간인 高等學校學歷者가 69.3%로 가장 높았으며, 9년인 中學校學歷者가 16.0%로 다음이었고, 專門大學 以上 學歷者는 12.3%였고, 國民學校 學歷者는 2.4%에 불과하였다.

2. 保健에 대한 知識 및 實踐水準

1) 保健에 대한 知識 및 實踐의 一般事項

(1) 保健에 대한 知識 및 實踐의 項目別 點數分布
 보건에 대한 知識 및 實踐과 關聯된 問項을 각 5 개 選擇하여 전체 10개 문항으로 하여 正答은 1문항에 1점씩으로 하고 誤答은 0점으로 처리하여 보건에 대한 지식 및 실천 항목별로 각각 5점씩 만점으로

하였다.

知識에 대한 점수는 5점 만점에서 4점이 39.9% 로 가장 높았고 3점이 25.7% 였으며 2점이 24.7% 였으며 5점이 7.3%였다. 實踐點數는 3점이 44.0% 로 가장 높았고 2점이 30.8%, 4점이 17.2% 5점이 6.0%여서 上位點數에서 知識正答者數가 實踐應答者數보다 높아 知識이 곧 實踐으로 履行되지 않음을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Respondents of workers	
	Number	%
Gender		
Male	2475	72.9
Female	921	27.1
Age(years)		
≤19	228	6.7
20-29	1150	33.9
30-39	1223	36.0
40-49	669	19.7
≥50	126	3.7
Marital Status		
Unmarried	1377	40.5
Married	1950	57.4
Divorce	33	1.0
Others	36	1.1
Economic Status		
High	69	2.0
Middle	1860	54.8
Low	1467	43.2
Working period(years)		
≤1	366	10.8
1-3	642	18.9
3-5	342	10.1
5-9	1146	33.7
≥10	900	26.5
Education(years)		
≤ 6	81	2.4
≤ 9	546	16.0
≤ 12	2352	69.3
≤ 14	189	5.6
≤ 16	228	6.7
Total	3396	100.0

알 수 있었다. 知識은 平均 3.08 ± 1.03 , 實踐은 2.79 ± 1.12 로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 < 0.001$) (Table 5).

保健에 대한 知識과 實踐의 전체 10개 문항에 대한 總點數 分布에서는 만점 10점에서 6점이 26.5%로 가장 높았고 5점이 22.7%, 7점 16.7%, 8점 15.7%였다(Table 6).

(2) 健康行爲의 項目別 點數 分布

健康行爲를 나타낼 수 있는 變數로서 運動, 吸煙, 飲酒, 偏食, 커피, 자신의 健康生活, 保健教育態度, 1日 3食 등 7개 項目을 選定하여 健康行爲를 하는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으로 하여 分析한 결과 4점이 21.6%로 가장 높았고 3점이 21.1%로 5점이 18.6%, 6점이 11.3%의 순이었으며 8점 滿點은 3.5%였고 0점은 2.7%였다(Table 7).

Table 5. Distribution of Score as an Itemized List for KP on Health

Score	Knowledge		Practice	
	Number	%	Number	%
0	18	0.5	18	0.5
1	66	1.9	51	1.5
2	840	24.7	1045	30.8
3	876	25.7	1500	44.0
4	1347	39.9	588	17.2
5	249	7.3	204	6.0
Total	3396	100.0	3406	100.0
Mean \pm S. D.	3.08 ± 1.03		2.79 ± 1.12	
		$p < 0.001$		

Table 6. Distribution of Score as a Whole Itemized List for KP on Health

Score	Number	%
0	3	0.1
1	3	0.1
2	21	0.6
3	39	1.6
4	87	2.6
5	774	22.7
6	903	26.5
7	558	16.7
8	534	15.7
9	285	8.5
10	189	5.5
Total	3396	100.0

Table 7. Distribution of Score for Health Behavior

Score	Number	%
0	93	2.7
1	201	5.9
2	507	14.9
3	717	21.1
4	735	21.6
5	633	18.6
6	384	11.3
7	114	3.4
8	12	3.5
Total	3396	100.0
Mean±S. D.	3.73±1.64	

(3) 一般特性 變數에 대한 保健知識 및 實踐과
健康行爲點數 分布

一般特性 變數別 保健知識 및 實踐點數를 보면 5 점 만점에 知識 3.08점, 實踐 2.79으로 10점 滿點에 5.8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知識水準은 높으나 實踐水準은 낮았다. 健康行爲水準은 8점 만점에 3.73으로 낮은 편이었다(Table 8).

產業場 勤勞者들은 職業病을豫防하고 作業生產性을 向上시키며, 健康한 生活을 營爲하기 위해 바람직한 健康의 知識, 態度, 實踐(行動)을 가지도록 保健教育이 반드시 必要하며³⁰⁾, 產業保健의 重要部分으로서 實施되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³⁶⁾. 그러나 우리나라 産業保健에 對한 教育과 訓練은 매우 斷片의이고 非持續的이며 實施率도 매우 낮은 實情이다^{37~39)}. 그러므로 本 研究結果에 의한 낮은 水準은 당연하다 하겠다.

性別로 보면 知識과 實踐을 합한 점수는 남자에서 10점 만점으로 6.41 ± 1.56 으로 여자의 5.23 ± 1.75 보다 높았다($p<0.001$). 知識點數는 남자가 5점 만점에 3.37 ± 0.93 으로 높으나, 實踐點數는 3.04 ± 0.94 로 知識點數보다 낮아서 지식이 실천으로 이행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8점 만점인 健康行爲點數는 남자가 3.92 ± 1.65 , 여자는 3.54 ± 1.58 로서 중간인 4점 미만으로 수준 이하임을 알 수 있으며, 性別로 有意한 差가 없었다($p>0.05$).

年齡別로 보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 知識과 實踐水準은 10점 만점에 6.30점과 6.17 ± 1.75 점으로 높았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知識 및 實踐水準도 낮아서 19세 이하에서는 5점 만점에 지식이 2.34 ± 0.97 점, 실천이 2.26 ± 1.19 점으로 낮았으며 知識水準이 實踐보다 약간 높았으며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0.001$).

健康行爲水準은 年齡이 높을수록 높아서 8점 만점에 50세 이상에서는 4.29 ± 1.60 이었고 19세 이하에서는 3.05 ± 1.62 였다.

結婚狀態別로는 知識과 實踐水準이 有配偶者에서 6.23 ± 1.59 로 가장 높았다($p<0.001$).

經濟狀態別로는 上流層에서 知識과 實踐水準이 6.09 ± 1.97 로서 상류층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았으며 健康行爲點數도 8점 만점에 上流層에서는 4.52 ± 1.29 로서 下流層 3.70 ± 1.66 보다 현저히 높았다($p<0.001$).

Table 8. Distribution of Score for Health KP and Health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 of Variables

Classification	N	Score			
		Knowledge Max.: 5	Practice Max.: 5	K + P Max.: 10	Health Behavior Max.: 8
Gender					
Male	2475	3.37±0.93	3.04±0.94	6.41±1.56	3.92±1.65
Female	921	2.69±1.12	2.54±1.08	5.23±1.75	3.54±1.58
Total	3396	3.08±1.03	2.79±1.12	5.87±1.69	3.73±1.64
(F-ratio)		4.44***	4.31**	4.26***	1.09
Age (years)					
<19	228	2.34±0.97	2.26±1.19	4.60±1.81	3.05±1.62
20-29	1150	2.92±1.07	2.62±0.94	5.54±1.61	3.58±1.56
30-39	1223	3.27±0.96	2.87±0.98	6.14±1.64	3.86±1.66
40-49	669	3.25±0.98	3.05±0.97	6.30±1.60	3.88±1.65
50->	126	3.29±0.83	2.88±1.08	6.17±1.75	4.29±1.60
Total	3396	3.08±1.03	2.79±1.01	5.87±1.69	3.73±1.64
(F-ratio)		53.60***	38.43***	65.34***	19.89***
Marital Status					
Unmarried	1377	2.82±1.08	2.58±0.98	5.40±1.66	3.49±1.60
Married	1950	3.27±0.95	2.96±0.95	6.23±1.59	3.89±1.64
Divorce	33	2.55±1.39	1.82±1.49	4.37±2.26	4.27±1.68
Others	36	3.42±0.65	2.75±1.38	6.17±1.93	3.75±1.66
Total	3396	3.08±1.03	2.79±1.00	5.87±1.69	3.73±1.64
(F-ratio)		57.37***	51.38***	78.75***	17.18***
Economic Status					
High	69	3.26±1.30	2.83±1.25	6.09±1.97	4.52±1.29
Middle	1860	3.07±1.02	2.83±0.97	5.90±1.64	3.75±1.63
Low	1467	3.10±1.02	2.75±1.02	5.85±1.74	3.70±1.66
Total	3396	3.09±1.03	2.79±1.00	5.88±1.69	3.73±1.64
(F-ratio)		4.39***	1.30	0.76	8.44***
Working period (years)					
less 1	366	2.87±0.97	2.54±1.09	5.41±1.69	3.20±1.62
1-3	642	2.75±1.14	2.65±0.95	5.40±1.71	3.49±1.63
3-5	342	3.00±1.12	2.67±1.09	5.67±1.91	3.47±1.60
5-9	1146	3.21±0.97	2.77±0.99	5.98±1.64	3.81±1.64
10->	900	3.28±0.95	3.04±0.94	6.32±1.56	4.14±1.57
Total	3396	3.08±1.03	2.79±1.01	5.87±1.69	3.73±1.64
(F-ratio)		33.27***	24.13***	37.48***	30.95***
Education (years)					
≤ 6	81	2.85±1.28	2.41±1.26	5.26±2.25	3.49±1.69
≤ 9	546	3.17±1.01	2.82±0.95	5.99±1.57	3.79±1.64
≤ 12	2396	3.04±1.03	2.76±1.00	5.80±1.67	3.72±1.63
≤ 14	189	3.21±1.04	2.95±0.85	6.16±1.61	3.81±1.76
≤ 16	228	3.23±0.98	3.14±0.95	6.37±1.80	4.30±1.31
Total	3396	3.08±1.03	2.79±0.99	5.87±1.69	3.73±1.64
(F-ratio)		4.67***	11.55***	9.66***	3.98**

p<0.01 *p<0.001

勤務年數가 높을수록 知識 및 實踐水準도 높아서 10년 이상이 10점 만점에 6.32 ± 1.56 이었다($p < 0.001$).

健康行爲水準도 역시 10년 이상에서 8점 만점에 4.14 ± 1.57 로서 1년 미만 3.20 ± 1.62 보다 현저히 높아勤務年數가 높을수록 健康行爲水準이 높았다($p < 0.001$).

學歷水準別로는 知識 및 實踐水準은 大卒 以上에서 6.37 ± 1.80 , 國卒 5.26 ± 1.69 보다 1.11점 높았다($p < 0.01$).

(4) 心理的 變數에 대한 保健知識 및 實踐과 健康行爲點數 分布

心理的 變數別로 保健知識 및 實踐水準을 보면 Table 9와 같다.

業務適性 滿足度는 매우 만족이 10점 만점에 5.99 ± 1.58 이며 F-ratio는 5.87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 < 0.001$). 매우 不滿인 경우는 5.38 ± 1.85 로서 일반적으로 滿足度가 클수록 KP 水準도 높았다. 健康行爲水準은 8점 만점에 3.73 ± 1.64 였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健康行爲水準도 높았다($p < 0.001$).

作業環境 滿足度를 보면 매우 만족이 5.93 ± 1.70 이며 매우 불만이 5.89 ± 1.74 였다. 健康行爲水準은 作業環境 滿足度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 < 0.001$). 이로서 業務適性과 作業環境 滿足은 心理的으로 安定感을 갖게 하여 보건에 대한 知識과 實踐水準을 높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健康生活을 實踐하여 行動으로 直結된다고 볼 수 있겠다.

保健教育內容 滿足度를 보면 매우 滿足하는 경우는 KP 水準이 5.96 ± 1.62 로서 매우 不滿인 경우의 5.76 ± 1.81 보다 높아 滿足度가 높을수록 知識 및 實踐水準도 높았다($p < 0.001$).

健康行爲 역시 매우 滿足 3.96 ± 1.65 , 매우 不滿 3.39 ± 1.82 로서 滿足度가 높을수록 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 < 0.001$). 이는 教育內容을 충실히 하여 滿足感을 주는 것이 健康水準을 높힌다는 것을 立證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의 경우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 KP 水準은 6.00 ± 1.53 으로 매우 심하게 느끼는 경우의 3.82 ± 2.07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 < 0.001$). 健康行爲水準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경우 4.15 ± 1.41 로서 심한 경우의 3.39 ± 1.58 보다 아주 높았으며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 < 0.001$).

保健教育은 스트레스와 關聯된 問題들을 줄여준다는 報告³⁰⁾와 一致한다.

作業疲勞度를 보면 疲勞가 없는 경우의 KP 水準은 7.05 ± 1.63 으로 대단히 피로한 경우의 6.07 ± 1.94 보다 0.98점 정도 높았으며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 < 0.001$).

健康行爲水準 역시 疲勞가 없는 경우는 3.95 ± 1.61 로서 疲勞가 심한 경우의 3.13 ± 1.77 보다 0.82점이 높게 나타났다($p < 0.001$).

따라서 勤勞者들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거나 받더라도 이를 풀어주고 疲勞를 줄이는 여러가지 方法을 開發하여 健康에 대한 知識 및 實踐水準을 높이고 健康生活을 行動化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健康한 產業場을 이룩하여 生產性 提高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5) 健康水準變數別 知識・實踐 및 健康行爲點數 分布

自家判斷 健康狀態 水準別로 知識, 實踐 및 健康行爲의 點數를 보면 아주 健康群에서 5.92 ± 1.91 점 健康이 아주 나쁜 群에서 4.43 ± 1.88 점으로서 健康할수록 知識, 實踐의 點數는 높았다. 知識 및 實踐 點數는 10점 滿點에 平均 5.87 ± 1.69 이었으며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 < 0.001$).

이는 100點 滿點에 60點도 되지 않아서 낮은 水準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Jerome과 Phoon^{34~35)}이 報告한 바와 같이 健康障害 豫防을 위한 行爲가 이루어지도록 教育訓練 프로그램이 開發되어야 한다.

健康行爲水準 역시 아주 健康 群이 4.07 ± 1.66 점,

Table 9. Distribution of Score for Health KP and Health Behavior by General Mentality Variables

Classification	N	Score			Health Behavior Max.: 8
		Knowledge Max.: 5	Practice Max.: 5	K + P Max.: 10	
Satisfaction with Work Aptitude					
Completed Satisfied	138	3.16±0.95	2.83±0.97	5.99±1.58	4.04±1.65
Satisfied	612	3.07±0.90	2.50±1.12	5.57±1.70	4.00±1.47
More & Less Satisfied	1794	3.03±1.09	2.84±1.01	5.87±1.70	3.77±1.67
Little Satisfied	645	3.02±1.10	2.81±1.01	5.83±1.83	3.45±1.60
Much Unsatisfied	195	2.86±1.18	2.52±0.95	5.38±1.85	3.22±1.73
Total	3384	3.09±1.02	2.80±0.99	5.89±1.68	3.73±1.64
(F-ratio)		4.99***	6.60***	5.87***	15.26***
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Completed Satisfied	78	3.17±0.99	2.76±1.04	5.93±1.70	4.46±1.46
Satisfied	465	3.19±1.15	2.50±1.19	5.69±2.14	3.97±1.57
More & Less Satisfied	1344	2.88±1.14	2.73±1.00	5.61±1.66	3.82±1.69
Little Satisfied	909	3.07±0.99	2.83±0.96	5.90±1.64	3.59±1.62
Much Unsatisfied	576	3.04±1.09	2.85±0.94	5.89±1.74	3.43±1.56
Total	3372	3.08±1.03	2.79±1.00	5.87±1.70	3.73±1.64
(F-ratio)		6.36***	4.33**	4.52**	14.19***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Education					
Completed Satisfied	81	3.13±0.95	2.83±0.99	5.96±1.62	3.96±1.65
Satisfied	444	3.07±1.25	2.85±0.94	5.92±1.92	3.95±1.51
More & Less Satisfied	1758	3.06±1.14	2.70±1.08	5.76±1.80	3.75±1.63
Little Satisfied	684	3.07±1.06	2.72±0.96	5.79±1.71	3.69±1.66
Much Unsatisfied	330	2.93±1.13	2.83±0.99	5.76±1.81	3.39±1.82
Total	3297	3.09±1.03	2.79±1.00	5.86±1.69	3.74±1.65
(F-ratio)		3.72*	3.56*	1.290.058	6.17***
Stress					
Severe	864	1.82±1.28	2.00±1.14	3.82±2.07	3.39±1.58
A little	2235	3.06±0.99	2.88±0.95	5.94±1.63	3.64±2.03
Very little	165	2.78±1.28	2.62±1.19	5.40±2.20	3.90±1.61
No Stress	66	3.19±0.93	2.81±0.97	6.00±1.53	4.15±1.41
Total	3330	3.11±1.00	2.80±0.99	5.91±1.64	3.77±1.62
(F-ratio)		50.37***	17.52***	44.59***	24.18***
Fatigue with Daily Work					
Very Tired	633	3.67±0.95	2.40±1.16	6.07±1.94	3.13±1.77
A little Tired	1845	3.85±1.08	2.71±0.88	6.56±1.57	3.47±1.54
Usual	807	4.20±0.93	2.87±0.98	7.07±1.56	3.81±1.62
Fatigueless	45	4.23±0.94	2.82±1.02	7.05±1.63	3.95±1.61
Total	3330	4.13±0.97	2.82±0.98	6.95±1.60	3.77±1.62
(F-ratio)		25.46***	6.18***	20.61***	13.29***

* p<0.05 ** p<0.01 *** p<0.001

아주 健康 나쁜 群이 3.00 ± 1.79 점으로써 自家判斷 健康狀態가 좋을수록 點數가 높았으며 8점 滿點에 平均은 3.73 ± 1.64 이었고 $p < 0.001$ 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Table 10).

缺勤 與否에 따른 保健 KP 點數水準은 缺勤이 없는 群이 4.98 ± 1.63 점으로 缺勤이 있는 群의 5.72 ± 1.76 점 보다 낮았으며 健康行爲點數는 缺勤 없는 群이 3.84 ± 1.64 점으로 缺勤있는 群의 3.54 ± 1.63 점보다 높았다.

病·醫院 訪問群의 KP 水準은 5.97 ± 1.63 점으로 非訪問群의 5.64 ± 1.82 점보다 높았다. 藥局訪問

의 경우도 訪問하는 群의 KP 點數는 5.96 ± 1.62 로 訪問하지 않는 群 5.68 ± 1.82 점보다 높았다.

健康行爲點數는 病·醫院과 藥局訪問 群에서 각각 3.84 ± 1.61 , 3.85 ± 1.60 으로서 訪問 않는 群의 각각 3.50 ± 1.69 와 3.51 ± 1.71 보다 높았다. 이는 病·醫院 및 藥局訪問이 있는 경우는 疾病에 대한 知識 및 情報를 保健醫療人으로부터 習得할 機會가 많기 때문으로 判斷된다. 그리고 이는 健康하려고 하는 意志가 담긴 健康行爲實踐과 知識 및 情報 習得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Table 10. Distribution of Score for Health KP & Health Behavior by Health Level

Classification	N	Score			
		Knowledge Max.: 5	Practice Max.: 5	K + P Max.: 10	Health Behavior Max.: 8
Health Status(Self Assessment)					
Very Good	201	3.10 ± 1.90	2.70 ± 1.12	5.80 ± 1.91	4.07 ± 1.66
Good	1137	3.12 ± 0.98	2.77 ± 1.00	5.89 ± 1.61	3.94 ± 1.53
Moderate	1572	3.09 ± 1.03	2.83 ± 0.97	5.92 ± 1.68	3.57 ± 1.67
Poor	444	2.10 ± 1.01	2.72 ± 1.03	4.82 ± 1.70	3.63 ± 1.73
Very Poor	42	2.07 ± 1.81	2.36 ± 1.30	4.43 ± 1.88	3.00 ± 1.79
Total	3396	3.08 ± 1.03	2.79 ± 1.00	5.87 ± 1.69	3.73 ± 1.64
(F-ratio)		10.93***	3.67**	8.15***	11.44***
Absence from Work Place					
No	2433	2.16 ± 0.97	2.82 ± 1.00	4.98 ± 1.63	3.84 ± 1.64
Yes	963	2.95 ± 1.12	2.77 ± 0.94	5.72 ± 1.76	3.54 ± 1.63
Total	3396	3.07 ± 1.05	2.80 ± 1.01	5.87 ± 1.69	3.73 ± 1.64
(F-ratio)		11.32***	5.13*	11.17***	1.01 0.885
Visiting Hospital					
No	1086	2.97 ± 1.05	2.67 ± 1.06	5.64 ± 1.82	3.50 ± 1.69
Yes	2310	3.13 ± 1.02	2.84 ± 0.97	5.97 ± 1.63	3.84 ± 1.61
Total	3396	3.11 ± 1.04	2.76 ± 1.07	5.87 ± 1.69	3.73 ± 1.64
(F-ratio)		2.06 0.254	5.20***	8.26***	6.11*
Visiting Pharmacy					
No	1164	2.98 ± 1.06	2.70 ± 1.06	5.68 ± 1.82	3.51 ± 1.71
Yes	2232	3.13 ± 1.01	2.83 ± 0.97	5.96 ± 1.62	3.85 ± 1.60
Total	3396	3.10 ± 1.04	2.77 ± 1.02	5.87 ± 1.69	3.73 ± 1.64
(F-ratio)		2.10 0.07	4.19**	8.26***	4.14**

* $p < 0.05$ ** $p < 0.01$ *** $p < 0.001$

2) 保健知識 및 實踐水準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1) 人口, 社會, 經濟的 特性變數와 保健의 知識 및 實踐水準

勤勞者의 保健에 대한 KP 水準이 全體 應答者の 4.2%가 下位水準이고 64.9%가 中位水準 30.8%가 上位水準으로 나타났으며 經濟狀態 變數를 除外한 人口學的 및 社會經濟的 變數가 個人的 保健 KP 水準과 統計學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즉 保健에 대한 知識과 實踐水準과 勤勞者의 性別, 年齡, 結婚狀態, 勤務年限, 教育水準 變數는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0.001$). KP 水準은 女子에서 上位水準이 많았고 男子에서 中位水準이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上位水準이 많았다(Table 11).

知識은 中位水準이 65.8%이고 上位水準은 24.6%였다. 特性變數別로 보면 男子에서는 中位水準이 女子에서는 上位水準이 많았으며 年齡이 높고 中位水準이 낮을수록 上位水準이 많았다. 勤務年限이 높을수록 中位水準이 많았고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中位水準이 많았다. 經濟狀態 變數를 除外한 모든 變數는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0.001$) (Table 12).

實踐은 上位水準이 17.1%, 中位水準이 74.9%, 下位水準이 8.0%로서 知識에서 보인 上位水準 24.6%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음을 보이고 있어 知識水準이 곧 實踐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示唆하고 있다 하겠다(Table 13). 實踐水準은 모든 變數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었다($p<0.001$) (경제상태 변수만 $p<0.05$).

(2) 心理的 變數와 保健知識 및 實踐水準

心理的 變數에서 業務適性 滿足度는 보통이 53.0%로 가장 높았고 不滿이 24.9%(약간 不滿 19.1%, 아주 不滿 5.8%) 滿足이 22.1%(약간 滿足 18.1%, 아주 滿足 4.0%)였다(Table 14).

業務適性 滿足度別로 知識 및 實踐水準을 보면 매우 滿足하는 경우 知識 및 實踐水準이 上位水準에

속하는 사람이 52.2%로 다른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다.

作業環境 滿足度는 보통이 39.9%로 가장 높았고 불만이 44.0%(약간 不滿이 26.9%, 매우 不滿이 17.1%)였으며 매우 滿足과 약간 滿足은 16.1%였다. 滿足하는 경우가 不滿인 경우보다 保健知識 및 實踐水準이 上位에 많이 分布되어 있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는 92.8%로(약간 느낀다 67.1%, 매우 심하다 25.9%) 대부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느끼지 않는 경우 7.0%에 불과하였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경우 知識 및 實踐水準이 上位에 속하는 應答者が 많았다.

平日 作業疲勞度는 보통이 24.2%였으며 疲勞한 경우가 74.4%(대단히 疲勞 19.0%, 약간 疲勞 55.4%)로 전체의 2/3가 疲勞를 느끼고 있었다. 피로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 知識 및 實踐水準이 上位에 속하는 應答者가 60.0%로 월등히 높았다.

業務適性 滿足度, 作業環境 滿足度, 스트레스 정도, 작업피로도 變數는 知識 및 實踐水準과는 差異가 있었다($p<0.001$).

保健教育 내용 滿足度를 보면 보통이 53.3%였고 불만이 30.7%(약간 不滿 20.7%, 매우 不滿 10.0%)로 약 1/3이 不滿이었으며 滿足하는 경우는 16.0%였다. 保健教育內容 滿足度와 保健의 知識 및 實踐水準과는 統計學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없었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業務適性, 作業環境에 滿足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거나 作業疲勞가 없는 應答者的 경우는 保健에 대한 知識 및 實踐水準이 상위에 속해 있어 心理的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疲勞가 적은 경우는 健康에 대하여도 肯定的으로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間接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心理的 變數와 知識水準과의 관계를 보면 業務適性 滿足度와 作業環境 滿足度는 知識水準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0.001$) (Table 15).

Table 1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KP Level on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KP Index Level				
	Lower	Middle	Upper	Total	%
Gender					
Male	2.8	73.0	24.2	100.0 (2475)	72.9
Female	8.8	42.8	48.4	100.0 (821)	27.1
	$\chi^2 = 275.80752^{***}$		DF = 2		
Age (years)					
20-29	13.2	34.2	52.6	100.0 (228)	6.7
30-39	4.1	57.0	38.9	100.0 (1150)	33.9
40-49	3.9	72.0	24.1	100.0 (1223)	40.0
50->	3.6	75.8	20.6	100.0 (669)	19.7
	2.4	66.7	31.0	100.0 (126)	3.7
	$\chi^2 = 218.37116^{***}$		DF = 8		
Marital Status					
unmarried	5.7	52.7	41.6	100.0 (1377)	40.5
Married	3.1	74.0	22.9	100.0 (1950)	57.4
Divorce	18.2	36.4	45.5	100.0 (33)	1.0
Others	87.3	66.7	25.0	100.0 (36)	1.1
	$\chi^2 = 180.20953^{***}$		DF = 6		
Economic Status					
High	4.3	73.9	21.7	100.0 (69)	2.0
Middle	3.6	65.1	31.3	100.0 (1860)	54.8
Low	5.3	64.8	29.9	100.0 (1467)	43.5
	$\chi^2 = 8.77550$ (N.S.) DF = 4				
Working period (years)					
less 1	6.5	57.7	35.8	100.0 (69)	10.8
1-3	5.1	52.3	42.5	100.0 (642)	18.9
3-5	6.1	59.6	34.2	100.0 (342)	10.1
5-9	4.7	69.1	26.2	100.0 (1146)	33.7
10->	2.3	73.3	24.3	100.0 (900)	26.5
	$\chi^2 = 101.75961^{***}$		DF = 8		
Education (years)					
≤ 6	11.1	55.6	33.3	100.0 (81)	2.4
≤ 9	2.7	69.8	27.5	100.0 (546)	16.1
≤ 12	4.5	62.5	33.0	100.0 (2352)	69.2
≤ 14	3.2	74.6	22.2	100.0 (189)	5.6
≤ 16	3.9	73.7	22.4	100.0 (228)	6.7
	$\chi^2 = 39.05695^{***}$		DF = 8		
Total N	144	2205	1047	3396	
%	4.2	634.9	30.8	100.0	

***p<0.001

N.S.: Not Significance

Table 12.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Knowledge Level on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Knowledge Index Level				
	Lower	Middle	Upper	Total	%
Gender					
Male	6.7	69.9	23.4	100.0 (2475)	72.9
Female	17.6	53.9	28.4	100.0 (921)	27.1
	$\chi^2 = 116.82487^{***}$		DF = 2		
Age (years)					
<19	22.4	44.7	32.9	100.0 (228)	6.7
20-29	11.1	59.8	29.0	100.0 (1150)	33.9
30-39	7.9	68.3	23.8	100.0 (1223)	40.0
40-49	6.3	76.2	17.5	100.0 (669)	19.7
50->	11.9	73.8	14.3	100.0 (126)	3.7
	$\chi^2 = 122.85079^{***}$		DF = 8		
Marital Status					
Unmarried	13.2	59.1	27.7	100.0 (1377)	40.5
Married	6.2	70.9	22.9	100.0 (1950)	57.4
Divorce	45.5	45.5	9.1	100.0 (33)	1.0
Others	8.3	66.7	25.0	100.0 (36)	1.1
	$\chi^2 = 177.61360^{***}$		DF = 6		
Economic Status					
High	13.0	69.6	17.4	100.0 (69)	2.0
Middle	8.8	67.0	24.1	100.0 (1860)	54.8
Low	10.4	64.4	25.2	100.0 (1467)	43.5
	$\chi^2 = 5.87073$ (N.S.)		DF = 4		
Working period (years)					
less 1	14.6	56.9	28.5	100.0 (366)	10.8
1-3	12.1	61.2	26.6	100.0 (642)	18.0
3-5	12.3	61.4	26.3	100.0 (342)	10.1
5-9	9.2	64.9	25.9	100.0 (1146)	33.7
10->	6.0	74.7	19.3	100.0 (900)	26.5
	$\chi^2 = 61.37943^{***}$		DF = 8		
Education (years)					
≤ 6	29.6	55.6	14.8	100.0 (81)	2.4
≤ 9	9.3	68.1	22.5	100.0 (546)	16.1
≤ 12	9.7	63.9	26.4	100.0 (2352)	69.2
≤ 14	4.8	71.4	23.8	100.0 (189)	5.6
≤ 16	5.3	78.9	15.8	100.0 (228)	6.7
	$\chi^2 = 67.59345^{***}$		DF = 8		
Total N	324	2235	837	3396	
%	9.5	65.8	24.6	100.0	

***p<0.001 N.S. : Not Significance

Table 13.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Practice Level on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Practice	Index	Level	Total	%
	Lower	Middle	Upper		
Gender					
Male	5.7	81.7	12.6	100.0 (2475)	72.9
Female	14.1	56.2	29.7	100.0 (921)	27.1
	$\chi^2 = 230.90152^{***}$		DF = 2		
Age (years)					
<19	14.5	48.7	36.8	100.0 (228)	6.7
20-29	9.6	69.2	21.2	100.0 (1150)	33.9
30-39	6.4	81.6	12.0	100.0 (1223)	40.0
40-49	7.2	80.3	12.6	100.0 (669)	19.7
50->	2.4	81.0	16.7	100.0 (126)	3.7
	$\chi^2 = 151.40130^{***}$		DF = 8		
Marital Status					
Unmarried	10.5	65.0	24.5	100.0 (1377)	40.5
Married	6.0	81.5	12.5	100.0 (1950)	57.4
Divorce	27.3	54.5	18.2	100.0 (33)	1.0
Others	-	91.7	8.3	100.0 (36)	1.1
	$\chi^2 = 138.57031^{***}$		DF = 6		
Economic Status					
High	13.0	82.6	4.3	100.0 (69)	2.0
Middle	7.5	74.4	18.1	100.0 (1860)	54.8
Low	7.8	75.5	16.1	100.0 (1467)	43.5
	$\chi^2 = 10.95102^*$		DF = 4		
Working period (years)					
less 1	7.3	67.5	25.2	100.0 (366)	10.8
1-3	13.6	60.7	25.7	100.0 (642)	18.9
3-5	10.5	70.2	19.3	100.0 (342)	10.1
5-9	5.8	80.6	13.6	100.0 (1146)	33.7
10->	6.3	82.0	11.7	100.0 (900)	26.5
	$\chi^2 = 136.01147^{***}$		DF = 8		
Education (years)					
≤ 6	14.8	66.7	18.5	100.0 (81)	2.4
≤ 9	7.7	79.1	13.2	100.0 (546)	16.1
≤ 12	8.0	73.3	18.6	100.0 (2352)	69.2
≤ 14	6.3	82.5	11.1	100.0 (189)	5.6
≤ 16	6.6	77.6	15.8	100.0 (228)	6.7
	$\chi^2 = 22.84598^*$		DF = 8		
Total N	270	2544	582	3396	
%	8.0	74.9	17.1	100.0	

*p<0.05 **p<0.01 ***p<0.001

Table 14.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KP Level on Health by Mentality Variables

Mentality Var.	KP Index Level					%
	Lower	Middle	Upper	Total		
Satisfaction with Work Aptitude						
Completed Satisfied	2.2 (3)	45.7 (63)	52.2 (72)	100.0 (138)	4.0	
Satisfied	3.9 (24)	65.2 (399)	30.9 (189)	100.0 (612)	18.1	
More & Less Satisfied	3.8 (69)	61.9 (1239)	27.1 (486)	100.0 (1794)	53.0	
little Satisfied	5.6 (36)	61.9 (399)	32.6 (210)	100.0 (645)	19.1	
Much Unsatisfied	6.2 (12)	53.8 (105)	40.0 (78)	100.0 (195)	5.8	
Total	4.3 (144)	65.1 (2205)	30.6 (1035)	100.0 (3384)	100.0	
	$\chi^2 = 58.43502^{***}$		DF = 8			
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Completed Satisfied	7.7 (6)	61.5 (48)	30.8 (24)	100.0 (78)	2.3	
Satisfied	3.9 (18)	57.4 (267)	38.7 (180)	100.0 (465)	13.8	
More & Less Satisfied	5.4 (72)	66.7 (897)	27.9 (375)	100.0 (1344)	39.9	
little Satisfied	3.0 (27)	66.7 (597)	31.4 (285)	100.0 (909)	26.9	
Much Unsatisfied	4.7 (27)	65.6 (378)	29.7 (171)	100.0 (576)	17.1	
Total	4.4 (150)	64.9 (2187)	30.7 (1035)	100.0 (3372)	100.0	
	$\chi^2 = 27.67437^{***}$		DF = 8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Education						
Completed Satisfied	3.7 (3)	66.7 (54)	29.6 (24)	100.0 (81)	2.5	
Satisfied	4.1 (18)	66.2 (294)	29.7 (132)	100.0 (444)	13.5	
More & Less Satisfied	3.8 (66)	65.4 (1149)	30.9 (543)	100.0 (1758)	53.3	
little Satisfied	5.3 (36)	65.4 (447)	29.4 (201)	100.0 (684)	20.7	
Much Unsatisfied	6.4 (21)	61.8 (204)	31.8 (105)	100.0 (330)	10.0	
Total	4.4 (144)	65.6 (2148)	30.5 (1005)	100.0 (3297)	100.0	
	$\chi^2 = 7.30582$ (N.S.)		DF = 2			
Stress						
Severe	3.1 (27)	65.3 (564)	31.6 (273)	100.0 (864)	25.7	
A little	2.6 (57)	67.5 (1509)	29.9 (669)	100.0 (2235)	67.1	
Very little	10.9 (18)	58.2 (96)	30.9 (51)	100.0 (165)	5.0	
No Stress	31.8 (21)	22.7 (15)	45.5 (30)	100.0 (66)	2.0	
Total	3.7 (123)	65.6 (2184)	30.7 (1023)	100.0 (3330)	100.0	
	$\chi^2 = 199.73913^{***}$		DF = 2			
Fatigue with Daily Work						
Very Tired	4.3 (27)	56.4 (357)	39.3 (249)	100.0 (633)	19.0	
A little Tired	2.4 (45)	69.6 (1284)	28.0 (516)	100.0 (1845)	55.4	
Usual	4.1 (33)	68.0 (549)	27.9 (225)	100.0 (807)	24.2	
Fatigueless	6.7 (3)	33.3 (15)	60.0 (27)	100.0 (45)	1.4	
Total	3.3 (108)	66.2 (2205)	30.5 (1017)	100.0 (3330)	100.0	
	$\chi^2 = 63.95958^{***}$		DF = 2			

***p<0.001 N.S.: Not Significance

Table 15.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Knowledge Level on Health by Mentality Variables

Mentality Var.	Knowledge Index Level				
	Lower	Middle	Upper	Total	%
Satisfaction with Work Aptitude					
Completed Satisfied	14.5 (20)	57.2 (79)	28.3 (39)	100.0 (138)	4.0
Satisfied	7.8 (48)	67.2 (411)	25.0 (153)	100.0 (612)	18.1
More & Less Satisfied	9.4 (168)	68.6 (1230)	22.1 (396)	100.0 (1794)	53.0
little Satisfied	7.9 (51)	64.2 (414)	27.9 (180)	100.0 (645)	19.1
Much Unsatisfied	10.8 (21)	55.4 (108)	33.8 (66)	100.0 (195)	5.8
Total	9.1 (308)	66.3 (2242)	24.6 (834)	100.0 (3384)	100.0
	$\chi^2 = 51.83670^{***}$		DF = 8		
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Completed Satisfied	23.1 (18)	15.4 (12)	61.5 (48)	100.0 (78)	2.3
Satisfied	12.3 (57)	63.2 (294)	24.5 (114)	100.0 (465)	13.8
More & Less Satisfied	10.5 (141)	65.4 (879)	24.1 (324)	100.0 (1344)	39.9
little Satisfied	7.9 (72)	67.7 (615)	24.4 (222)	100.0 (909)	26.9
Much Unsatisfied	7.3 (42)	65.1 (375)	27.4 (159)	100.0 (576)	17.1
Total	9.8 (330)	65.6 (2211)	24.6 (831)	100.0 (3372)	100.0
	$\chi^2 = 30.71052^{***}$		DF = 8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Education					
Completed Satisfied	11.1 (9)	70.4 (57)	15.4 (15)	100.0 (81)	2.5
Satisfied	12.3 (57)	61.5 (273)	24.5 (114)	100.0 (444)	13.5
More & Less Satisfied	9.0 (159)	67.7 (1191)	23.2 (408)	100.0 (1758)	53.3
little Satisfied	10.1 (69)	63.2 (432)	26.8 (183)	100.0 (684)	20.7
Much Unsatisfied	9.1 (30)	67.3 (222)	23.6 (78)	100.0 (330)	10.0
Total	9.8 (324)	24.2 (2175)	66.0 (798)	100.0 (3297)	100.0
	$\chi^2 = 12.97552$ (N.S.)		DF = 8		
Stress					
Severe	6.9 (60)	69.4 (600)	23.6 (204)	100.0 (864)	25.7
A little	8.3 (186)	66.0 (1476)	25.6 (573)	100.0 (2235)	67.1
Very little	20.0 (33)	60.0 (99)	20.0 (33)	100.0 (165)	5.0
No Stress	16.7 (11)	56.1 (37)	27.3 (18)	100.0 (66)	2.0
Total	8.7 (290)	24.9 (2212)	66.4 (828)	100.0 (3330)	100.0
	$\chi^2 = 77.02907^{***}$		DF = 6		
Fatigue with Daily Work					
Very Tired	7.1 (45)	61.1 (387)	31.8 (201)	100.0 (633)	19.0
A little Tired	8.8 (162)	69.8 (1287)	21.5 (396)	100.0 (1845)	55.4
Usual	8.9 (72)	66.2 (534)	24.9 (201)	100.0 (807)	24.2
Fatigueless	11.1 (5)	55.6 (25)	33.3 (15)	100.0 (45)	1.4
Total	8.6 (288)	66.9 (2229)	24.4 (813)	100.0 (3330)	100.0
	$\chi^2 = 38.84303^{***}$		DF = 6		

***p<0.001 N.S. : Not Significance

教育內容 滿足度의 경우는 매우 滿足하는 경우 知識水準도 높게 나타났으나 變數간에 有意한 差異는 없었다. 「스트레스」정도와 作業疲勞度가 적을수록 知識水準은 상위에 속하였고 變數간에도 0.1%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心理的 變數와 保健實踐 水準을 보면 業務適性 滿足度와 作業環境 滿足度에서 滿足할수록 實踐水準이 상위에 속하였으며 이들 變數들은 0.1% 水準에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保健教育內容이 滿足인 경우는 實踐水準이 상위에 속해있고, 變數간에는 有意한 差異가 없었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거나 作業疲勞가 적은 경우는 實踐水準이 상위에 속해 있었으며 變數간에는 0.1%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Table 16).

3) 勤勞者의 特性과 健康行爲水準

(1) 一般特性과 健康行爲 變數

健康行爲 變數로 運動與否, 吸煙與否, 飲酒與否, 偏食與否, 커피過飲與否, 保健教育態度, 健康生活態度, 1日 3食 與否 등 8개 項目을 選定하고 健康生活을 하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하고 8점을 滿點으로 하였으며 0~3점을 下位, 4~5점을 中位, 6~8점을 上位水準으로 하여 分析하였다.

勤勞者의 健康行爲水準은 下位水準이 44.3%로 가장 높았고 中位水準이 40.7%였으며 上位水準은 14.9%였다 (Table 17).

性別로 보면 男子가 女子보다 健康行爲水準이 上位와 中位水準에 많았다. 年齡별로 보면 年齡이 높아질수록 健康行爲水準도 높았으며 50歲 이상 군에서는 他年齡群보다 한층 더 높았다. 結婚狀態別로는 有配偶者에서 行動上位水準이 높았고 經濟狀態가 좋을수록 健康行爲水準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勤務年數 별로는 勤務年數가 오래수록 健康行爲水準도 높았으며 이들 性別, 年齡別, 結婚狀態, 經濟狀態, 勤務年數別 變數는 $p < 0.001$ 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教育水準別로는 學歷이 낮은 층에서 健康行動水準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p < 0.05$ 로 有意한 差異는 있었다.

(2) 心理的 特性과 健康行爲水準

業務適性 滿足度와 作業環境 滿足度에서는 滿足度가 높을수록 上位水準의 健康行爲力이 높았으며 不滿이 클수록 健康生活行動水準이 下位에서 높았다. 이들 變數는 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教育內容 滿足度에서는 不滿이 클수록 健康行爲水準이 下位水準에서 높았고 滿足度가 높은 應答者が 健康行爲水準 上位에 속해 있는 率이 약간 높았으며 이들 變數는 5%水準에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p < 0.05$).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경우 健康行爲水準이 下位에 속하는 率이 높았으며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健康行爲水準이 上位에 속하는 率이 높았다 ($p < 0.001$).

作業疲勞가 심한 경우는 健康行爲水準이 上位에서 타군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들 變數는 0.01%수준에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p < 0.001$) (Table 18).

Table 16.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Practice Level on Health by Mentality Variables

Mentality Var.	Practice	Index	Level		
	Lower	Middle	Upper	Total	%
Satisfaction with Work Aptitude					
Completed Satisfied	4.3 (6)	71.7 (99)	23.9 (33)	100.0 (138)	4.0
Satisfied	9.8 (60)	71.1 (435)	19.1 (117)	100.0 (612)	18.1
More & Less Satisfied	6.0 (108)	78.6 (1410)	15.4 (276)	100.0 (1794)	53.0
little Satisfied	11.2 (72)	71.6 (462)	17.2 (111)	100.0 (645)	19.1
Much Unsatisfied	10.3 (20)	67.7 (132)	22.1 (43)	100.0 (195)	5.8
Total	7.7 (266)	75.0 (2538)	17.0 (580)	100.0 (3384)	100.0
	$\chi^2 = 41.59202^{***}$		DF = 8		
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Completed Satisfied	7.7 (6)	84.6 (66)	7.7 (6)	100.0 (78)	2.3
Satisfied	11.0 (51)	66.5 (309)	22.6 (105)	100.0 (465)	13.8
More & Less Satisfied	7.4 (99)	77.9 (1047)	14.7 (198)	100.0 (1344)	39.9
little Satisfied	6.3 (57)	74.3 (675)	19.5 (177)	100.0 (909)	26.9
Much Unsatisfied	10.4 (60)	72.9 (420)	16.7 (96)	100.0 (576)	17.1
Total	8.1 (273)	74.6 (2517)	17.3 (582)	100.0 (3372)	100.0
	$\chi^2 = 40.02260^{***}$		DF = 8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Education					
Completed Satisfied	8.6 (7)	67.9 (55)	23.5 (19)	100.0 (81)	2.5
Satisfied	10.1 (45)	73.6 (327)	16.2 (72)	100.0 (444)	13.5
More & Less Satisfied	6.0 (105)	77.0 (1353)	17.1 (300)	100.0 (1758)	53.3
little Satisfied	10.1 (69)	75.0 (513)	14.9 (102)	100.0 (684)	20.7
Much Unsatisfied	10.9 (36)	66.4 (224)	22.7 (68)	100.0 (330)	10.0
Total	7.9 (262)	75.1 (2462)	17.0 (561)	100.0 (3297)	100.0
	$\chi^2 = 32.5492$ (N.S.)		DF = 8		
Stress					
Severe	8.1 (70)	73.5 (635)	18.4 (159)	100.0 (864)	25.7
A little	5.5 (123)	78.2 (1748)	16.5 (364)	100.0 (2235)	67.1
Very little	18.2 (30)	65.5 (108)	16.4 (27)	100.0 (165)	5.0
No Stress	30.3 (20)	43.9 (29)	25.8 (17)	100.0 (66)	2.0
Total	7.3 (243)	75.7 (2520)	17.0 (567)	100.0 (3330)	100.0
	$\chi^2 = 187.33551^{***}$		DF = 6		
Fatigue with Daily Work					
Very Tired	10.4 (66)	67.3 (426)	22.3 (141)	100.0 (633)	19.0
A little Tired	5.5 (102)	78.4 (1446)	16.1 (297)	100.0 (1845)	55.4
Usual	5.6 (45)	79.2 (639)	15.2 (123)	100.0 (807)	24.2
Fatigueless	13.3 (6)	60.0 (27)	26.7 (12)	100.0 (45)	1.4
Total	6.6 (219)	76.2 (2538)	17.2 (573)	100.0 (3330)	100.0
	$\chi^2 = 46.83574^{***}$		DF = 6		

***p<0.001 N.S. : Not Significance

Table 17.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Health Behavior Level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rkers

Classification	Behavior Index Level on Health Life				
	Lower	Middle	Upper	Total	%
Gender					
Male	41.6	42.1	16.4	100.0 (2475)	72.9
Female	52.0	36.6	11.4	100.0 (921)	27.1
	$\chi^2 = 31.99750^{***}$		DF = 2		
Age (years)					
<19	59.2	32.9	7.9	100.0 (228)	6.7
20-29	47.4	40.9	11.7	100.0 (1150)	33.9
30-39	41.8	41.0	17.2	100.0 (1223)	40.0
40-49	41.7	41.3	17.0	100.0 (669)	19.7
50->	31.0	45.2	23.8	100.0 (126)	3.7
	$\chi^2 = 54.65849^{***}$		DF = 8		
Marital Status					
Unmarried	49.3	38.9	11.8	100.0 (1377)	40.5
Married	41.1	42.2	16.8	100.0 (1950)	57.4
Divorce	45.5	27.3	27.3	100.0 (33)	1.0
Others	41.7	41.7	16.7	100.0 (36)	1.1
	$\chi^2 = 32.12629^{***}$		DF = 6		
Economic Status					
High	17.4	65.2	17.4	100.0 (69)	2.0
Middle	44.0	40.6	15.3	100.0 (1860)	54.8
Low	45.8	39.7	14.5	100.0 (1467)	43.5
	$\chi^2 = 23.26077^{***}$		DF = 4		
Working period (years)					
less 1	57.7	32.5	9.8	100.0 (366)	10.8
1-3	48.6	38.8	12.6	100.0 (642)	18.0
3-5	50.9	42.1	7.0	100.0 (342)	10.1
5-9	43.2	41.1	15.7	100.0 (1146)	33.7
10->	35.0	44.3	20.7	100.0 (900)	26.5
	$\chi^2 = 92.20036^{***}$		DF = 8		
Education (years)					
≤ 6	33.3	48.1	18.5	100.0 (81)	2.4
≤ 9	44.5	38.5	17.0	100.0 (546)	16.1
≤ 12	44.3	41.65	14.2	100.0 (2352)	69.2
≤ 14	39.7	41.3	19.0	100.0 (189)	5.6
≤ 16	52.6	34.2	13.2	100.0 (228)	6.7
	$\chi^2 = 17.15573^{*}$		DF = 8		
Total N	15.6	1383	507	3396	
%	44.3	40.7	14.9	100.0	

*p<0.05 ***p<0.001

Table 18.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Health Behavior Level by Mentality Variables of Workers

Mentality Var.	Health Behavior Level				
	Lower	Middle	Upper	Total	%
Satisfaction with Work Aptitude					
Completed Satisfied	43.5 (60)	34.8 (48)	21.7 (30)	100.0 (138)	4.0
Satisfied	38.2 (234)	46.1 (282)	15.7 (96)	100.0 (612)	18.1
More & Less Satisfied	42.5 (762)	41.6 (747)	15.9 (285)	100.0 (1794)	53.0
little Satisfied	54.9 (354)	33.5 (216)	11.6 (75)	100.0 (645)	19.1
Much Unsatisfied	50.8 (99)	41.5 (81)	7.7 (15)	100.0 (195)	5.8
Total	44.6 (1509)	40.6 (1374)	14.8 (501)	100.0 (3384)	100.0
	$\chi^2 = 55.88447^{***}$ DF = 8				
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Completed Satisfied	34.6 (27)	46.2 (36)	19.2 (15)	100.0 (78)	2.3
Satisfied	39.4 (183)	43.9 (204)	16.8 (78)	100.0 (465)	13.8
More & Less Satisfied	42.0 (564)	40.6 (546)	17.4 (234)	100.0 (1344)	39.9
little Satisfied	47.9 (435)	39.3 (357)	12.9 (117)	100.0 (909)	26.9
Much Unsatisfied	50.5 (291)	40.6 (234)	8.9 (51)	100.0 (576)	17.1
Total	44.5 (1500)	40.8 (1377)	14.7 (495)	100.0 (3372)	100.0
	$\chi^2 = 40.22955^{***}$ DF = 8				
Degree of Contents of Education Satisfaction					
Completed Satisfied	44.4 (36)	37.0 (30)	18.5 (15)	100.0 (81)	2.5
Satisfied	40.5 (180)	43.9 (195)	15.5 (69)	100.0 (444)	13.5
More & Less Satisfied	43.0 (756)	42.2 (741)	14.8 (261)	100.0 (1758)	53.3
little Satisfied	46.5 (318)	36.8 (252)	16.7 (114)	100.0 (684)	20.7
Much Unsatisfied	50.0 (165)	40.0 (132)	10.0 (33)	100.0 (330)	10.0
Total	44.1 (1455)	40.9 (1350)	15.0 (492)	100.0 (3297)	100.0
	$\chi^2 = 17.58839^*$ DF = 8				
Stress					
Severe	54.2 (468)	36.1 (312)	9.7 (84)	100.0 (864)	25.7
A little	40.4 (903)	42.6 (951)	17.0 (381)	100.0 (2235)	67.1
Very little	32.7 (54)	50.9 (84)	16.4 (27)	100.0 (165)	5.0
No Stress	45.5 (30)	31.8 (21)	22.7 (15)	100.0 (66)	2.0
Total	43.7 (1455)	41.1 (1368)	15.2 (507)	100.0 (3330)	100.0
	$\chi^2 = 68.08148^{***}$ DF = 6				
Fatigue with Daily Work					
Very Tired	49.8 (315)	40.8 (258)	9.5 (60)	100.0 (633)	19.0
A little Tired	44.6 (822)	38.7 (417)	16.7 (309)	100.0 (1845)	55.4
Usual	36.4 (294)	47.2 (381)	16.4 (132)	100.0 (807)	24.2
Fatigueless	60.0 (27)	26.7 (12)	13.3 (6)	100.0 (45)	1.4
Total	43.8 (1458)	41.0 (1365)	15.2 (507)	100.0 (3330)	100.0
	$\chi^2 = 47.65258^{***}$ DF = 6				

*p<0.05 ***p<0.001

3. 健康狀態水準과 關聯要因

1) 健康水準과 保健에 대한 知識 및 實踐水準

Table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健康狀態가 普通인 應答者는 46.3%였고 좋다는 應答者는 39.4%로 대 부분 健康에 肯定의 이었으며 나쁘다는 14.9%였다. 이를 保健에 대한 知識 및 實踐水準과의 관계를 보면 普通以上 健康한 應答者에서 知識 및 實踐水準이 中, 上位圈에 많았으며 健康狀態가 매우 나쁜 應答者에서는 知識 · 實踐水準이 下位圈에서 28.6%로 높았다($p<0.001$).

職場의 缺勤有無와 관계를 보면 缺勤有無와 保健에 대한 知識 · 實踐水準과는 $p<0.05$ 水準에서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0.05$).

勤勞者에 對한 保健教育의 效果調查에서 保健教育 프로그램이 缺勤率을 減少시킨다고 報告된 바 있다.³³⁾

病 · 醫院 및 藥局訪問 有無와의 關聯性을 보면 病 · 醫院 및 藥局訪問이 없다는 應答群에서 知識 및 實踐水準이 높은 上位 應答者가 32.6%와 32.5%로서 높았다($p<0.001$).

2) 健康水準과 保健에 대한 知識水準

健康狀態水準과 保健知識水準과는 $p<0.001$ 로서 有意한 關聯性이 있으며, 缺勤有無는 有意性이 없었다. 保健醫療機關인 病 · 醫院과 藥局訪問 有無와는 0.01% 水準에서 有意한 關聯性이 있었다(Table 20).

Table 19.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Health Level by KP Index Level

Health Level	Health KP Index Level				
	Lower	Middle	Upper	Total	%
Health Status Level (Self Assessment)					
Very Good	7.5 (15)	56.7 (144)	35.8 (72)	100.0 (201)	5.9
Good	4.0 (45)	64.9 (738)	31.1 (354)	100.0 (1137)	33.5
Moderate	4.0 (63)	66.2 (1038)	30.0 (471)	100.0 (1572)	46.3
Poor	4.1 (18)	66.2 (294)	29.7 (132)	100.0 (444)	13.7
Very Poor	28.6 (12)	57.1 (24)	14.3 (6)	100.0 (42)	1.2
	$\chi^2 = 69.08543^{***}$		DF = 8		
Absence from Work Place					
No	4.4 (108)	65.8 (1602)	29.7 (723)	100.0 (2933)	71.6
Yes	4.7 (45)	62.9 (606)	32.4 (312)	100.0 (963)	28.4
	$\chi^2 = 6.72430^*$		DF = 2		
Visiting Hospital					
No	6.6 (72)	60.8 (660)	32.6 (354)	100.0 (1086)	32.0
Yes	3.5 (81)	67.0 (1548)	29.5 (681)	100.0 (2310)	68.0
	$\chi^2 = 24.04078^{***}$		DF = 2		
Visiting Pharmacy					
No	6.4 (75)	61.1 (711)	32.5 (378)	100.0 (1164)	34.03
Yes	3.5 (78)	67.1 (1497)	29.4 (657)	100.0 (2232)	65.7
	$\chi^2 = 25.86782^{***}$		DF = 6		
Total N	153	2208	1035	3396	
%	4.5	65.0	30.5	100.0	

* $p<0.05$ *** $p<0.001$

Table 20.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Health Level by Knowledge Index Level

Health Level.	Health Knowledge Index Level				
	Lower	Middle	Upper	Total	%
Health Status Level (Self Assessment)					
Very Good	16.4 (33)	64.2 (129)	19.4 (39)	100.0 (201)	5.9
Good	8.2 (93)	64.1 (729)	27.7 (315)	100.0 (1137)	33.5
Moderate	9.5 (150)	68.1 (1071)	22.3 (351)	100.0 (1572)	46.3
Poor	10.8 (48)	61.5 (273)	27.7 (123)	100.0 (444)	13.7
Very Poor	21.4 (9)	28.6 (12)	100.0 (42)	100.0 (42)	1.2
	$\chi^2 = 34.61315^{***}$		DF = 8		
Absence from Work Place					
No	10.6 (258)	65.0 (1581)	24.4 (594)	100.0 (2933)	71.6
Yes	7.9 (183)	67.5 (1560)	24.5 (567)	100.0 (963)	28.4
	$\chi^2 = 4.21812$ (N.S.) DF = 2				
Visiting Hospital					
No	13.8 (150)	61.1 (663)	25.1 (273)	100.0 (1086)	32.0
Yes	3.5 (81)	67.0 (1548)	29.5 (681)	100.0 (2310)	68.0
	$\chi^2 = 24.04078^{***}$		DF = 2		
Visiting Pharmacy					
No	12.9 (150)	62.9 (732)	24.2 (282)	100.0 (1164)	34.03
Yes	8.2 (183)	66.8 (1491)	25.0 (558)	100.0 (2232)	65.7
	$\chi^2 = 25.86782^{***}$		DF = 6		
Total N	333	2223	840	3396	
%	9.8	65.5	24.7	100.0	

***p<0.001 N.S. : Not Significance

3) 健康水準과 保健에 대한 實踐水準

健康狀態가 매우 좋다는 應答者群에서 保健에 대한 實踐水準이 上位에 속한 率이 높았으며 健康이 나쁘다는 應答者群에서는 他群보다 實踐水準이 下位에 속하는 率이 높았다(p<0.001) (Table 21).

4) 健康水準과 健康行爲水準

自家診斷 健康狀態가 좋을수록 健康行爲水準이 높게 나타났으며 0.1% 水準에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0.001).

缺勤이 없을수록 健康行爲水準이 높게 나타났으며

變數간에는 0.1% 水準에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 < 0.001) (Table 22).

保健醫療機關인 病·醫院이나 藥局訪問을 한다는 應答率이 높은 군에서 健康行爲水準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統計學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p < 0.001).

즉 健康行爲水準이 높다고 해서 保健醫療機關을 방문 안한다고 볼 수 없으며, 健康生活行動水準이 낮다고 해서 保健醫療機關을 자주 訪問하는 것은 아나라고 볼 수 있다.

Table 2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Health Level by Practice Index Level

Health Level	Health Practice Index Level				
	Lower	Middle	Upper	Total	%
Health Status Level (Self Assessment)					
Very Good	7.5 (15)	71.6 (144)	20.9 (42)	100.0 (201)	5.9
Good	7.0 (81)	75.0 (853)	18.0 (204)	100.0 (1137)	33.5
Moderate	7.8 (123)	75.4 (1185)	16.8 (264)	100.0 (1572)	46.3
Poor	8.8 (39)	75.7 (336)	15.5 (69)	100.0 (444)	13.7
Very Poor	28.6 (12)	50.0 (21)	21.4 (9)	100.0 (42)	1.2
	$\chi^2 = 31.09461^{***}$		DF = 8		
Absence from Work Place					
No	6.7 (162)	77.2 (1878)	16.1 (393)	100.0 (2933)	71.6
Yes	11.5 (111)	68.2 (657)	20.2 (195)	100.0 (963)	28.4
	$\chi^2 = 43.62543^{***}$		DF = 2		
Visiting Hospital					
No	8.3 (90)	69.0 (750)	22.7 (246)	100.0 (1086)	32.0
Yes	7.9 (183)	77.3 (1785)	14.8 (342)	100.0 (2310)	68.0
	$\chi^2 = 30.69063^{***}$		DF = 2		
Visiting Pharmacy					
No	8.5 (99)	69.8 (813)	21.6 (252)	100.0 (1164)	34.03
Yes	7.8 (174)	77.1 (1722)	15.1 (336)	100.0 (2232)	65.7
	$\chi^2 = 51.05854^{***}$		DF = 4		
Total N	237	2535	588	3396	
%	8.1	74.6	17.3	100.0	

***p<0.001

Table 22.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r Health Level by Health Behavior Level

Health Level	Health Behavior Level				
	Lower	Middle	Upper	Total	%
Health Status Level (Self Assessment)					
Very Good	32.8 (66)	47.8 (96)	19.4 (39)	100.0 (201)	5.9
Good	39.5 (450)	44.9 (510)	15.5 (177)	100.0 (1137)	33.5
Moderate	49.0 (771)	36.8 (579)	14.1 (222)	100.0 (1572)	46.3
Poor	49.3 (219)	35.8 (159)	14.9 (66)	100.0 (444)	13.7
Very Poor	28.6 (12)	57.1 (24)	14.3 (6)	100.0 (42)	1.2
	$\chi^2 = 51.35927^{***}$		DF = 8		
Absence from Work Place					
No	42.9 (1044)	40.6 (987)	16.5 (402)	100.0 (2933)	71.6
Yes	49.2 (474)	39.6 (381)	11.2 (108)	100.0 (963)	28.4
	$\chi^2 = 23.03755^{***}$		DF = 2		
Visiting Hospital					
No	50.6 (549)	36.7 (399)	12.7 (138)	100.0 (1086)	32.0
Yes	41.9 (969)	41.9 (969)	16.1 (372)	100.0 (2310)	68.0
	$\chi^2 = 20.32637^{***}$		DF = 2		
Visiting Pharmacy					
No	49.5 (576)	37.6 (438)	12.9 (150)	100.0 (1164)	34.03
Yes	42.2 (942)	41.7 (932)	16.1 (360)	100.0 (2232)	65.7
	$\chi^2 = 20.90326^{***}$		DF = 4		
Total N	1518	1368	510	3396	
%	44.7	40.3	15.0	100.0	

***p<0.001

4. 健康水準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別 特性

保健知識은 性別, 年齡, 勤務期間, 教育水準, 作業環境 滿足度, 스트레스와 正의 相關關係가 있었고 結婚狀態와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었다($p<0.01$).

保健實踐은 性別, 年齡, 勤務期間, 스트레스, 平日作業, 疲勞度 變數와는 正의 相關關係가 있었고 結婚狀態와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었다(Table 23).

保健知識 및 實踐은 性別, 年齡, 勤務期間, 業務適性 滿足度, 作業環境 滿足度, 教育 滿足度, 스트레스, 平日作業 疲勞度 變數와는 正의 相關關係 ($p<0.01$)가 있었고 經濟狀態와 教育과도 正의 相關關係 ($p<0.05$)가 있었으며 結婚狀態와는 負의 相關關係 ($p<0.01$)가 있었다.

健康行爲는 性別, 結婚狀態, 經濟狀態, 教育水準, 業務適性 滿足度, 作業環境 滿足度, 保健教育 滿足度, 스트레스, 平日作業 疲勞度 變數와는 正의 相關關係 ($p<0.01$)가 있었고 年齡과 勤務期間 變數와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었다($p<0.01$).

健·康水準 變數의 하나로 選定한 缺勤은 結婚狀態와는 正의 相關關係 ($p<0.01$)가 있으며 年齡, 經濟狀態, 勤務期間, 教育水準, 業務適性 滿足度, 作業環境 滿足度, 教育 滿足度, 作業疲勞度, 保健實踐, 保健知識 및 實踐, 健康行爲 變數와는 負의 相關關係 ($p<0.01$)가 있었으며 性別과 經濟水準 變數와도 負의 相關關係 ($p<0.05$)가 있었다.

病·醫院 訪問은 結婚狀態, 教育水準, 缺勤 變數와도 正의 相關關係 ($p<0.01$)가 있었고 性別, 年齡, 스트레스, 健康行爲와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었다 ($p<0.01$).

藥局訪問은 教育水準, 保健知識 및 實踐, 缺勤, 病院 訪問과는 正의 相關關係가 있었고 ($p<0.01$) 經濟狀態, 教育 滿足度, 作業環境 滿足度, 健康行爲 ($p<0.01$), 性別, 스트레스, 作業疲勞度 ($p<0.05$) 와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었다.

5. 一般 및 心理的 特性(x_i)이 保健知識 및 實踐(y_1),

健康行爲(y_2), 健康水準(y_3)에 미치는 影響

保健知識 및 實踐(y_1), 健康行爲(y_2), 健康水準(y_3)을 從屬變數로 하고 一般的 特性과 心理的 特性 (x_i)을 獨立變數로 하여 多重回歸分析한 바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本 分析에서 利用된 一般式은 아래와 같이 要約된다.

$$y = a + \sum_{i=1}^n b_i x_i$$

y = 從屬變數(保健知識 및 實踐, 健康行爲, 健康水準)

a =常數

b_i =各 獨立變數의 기울기

x_i =各 獨立變數

1) 保健 KP 水準과의 相關性

Table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保健 KP 水準 (y)에 대한 一般特性 (x_i)의 관계는 $y = 3.183 - 0.036x_1(\text{EDU}) + 0.109x_2(\text{SEX}) + 0.063x_3(\text{WOP}) - 0.087x_4(\text{MAR}) + 0.00115x_5(\text{AGE})$ 였고, 教育 (x_1)과 年齡 (x_5)은 기울기 B값이 5% 有意水準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했으며, 나머지 變數는 1% 以上에서 有意했다.

保健 KP 水準에 寄與하는 一般特性 變數는 勤務期間 $\beta = .108922$, 性別이 $\beta = .027891$, 結婚狀態가 $\beta = -.031714$, 年齡이 $\beta = .007739$, 教育水準이 $\beta = -.005382$ 였고 說明力은 7.3%였다.

保健 KP에 대한 心理的 特性的 관계는 $y = 8.298 - 0.065x_1(\text{SWE}) + 0.144x_2(\text{SHE}) + 0.154x_3(\text{SJE})$ 였고, SWE 및 SHE에서 B값은 5% 有意水準에서, SJE는 1% 以上에서 有意했다.

保健 KP 水準에 寄與하는 心理的 變數가 業務適性 滿足度는 $\beta = .105925$, 保健教育 滿足度는 $\beta = .055277$, 作業環境 滿足度는 $\beta = -.005125$ 였다. 이들 變數의 說明力은 6.4%였다.

Table 23. Correlation Coefficient of Variables

Correlation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0000																	
2	.5079**	1.0000																
3	-.5835**	-.7332**	1.0000															
4	-.1761**	-.1101**	.1744**	1.0000														
5	.4363**	.6639**	.5900**	-.0500*	1.0000													
6	.0621**	-.2761**	.1576**	.1355**	-.1681**	1.0000												
7	.0115	.0434**	-.0127	-.1648**	.0459*	.0428*	1.0000											
8	-.0781**	.0079	.0361	.1751**	.0080	.0084	.3882**	1.0000										
9	-.0456*	.0109	.0170	.1119**	.0453*	-.0625**	.2633**	.3725**	1.0000									
10	.0137	.0379	.0129	.0340	-.0281	-.0279	.1618**	.1000**	.0226	1.0000								
11	.0565*	.0715**	-.0787**	.0388	.0926**	-.0026	.1678**	.1700**	.1190**	.1878**	1.0000							
12	.1728**	.1612**	-.1677**	.0388	.1573**	.0943**	-.0133	-.0634**	-.0040	-.0938**	.0271	1.0000						
13	.2459**	.1660**	-.1829**	.0086	.1359**	.0244	-.0165	-.0251	.0285	-.0835**	.1177**	.3229**	1.0000					
14	.0794**	.1103**	-.1121**	.0440	.1568**	-.0526*	.1184**	.1168**	.0763**	.1381**	.0831**	.1104**	.1462**	1.0000				
15	-.1066**	-.1547**	.1279**	.1808	-.1437**	.1505**	1.2670**	.1558**	.1389**	.1187**	.2074**	-.0085	.0085	.0913**	1.0000			
16	-.0428*	-.0847**	.0806**	-.0428*	-.0989**	-.0072*	-.1574**	-.0955**	-.1195**	-.0233	-.1886**	-.0074	-.0740**	-.0977**	-.1528**	1.0000		
17	-.1195**	-.0875**	.0641**	-.0003	.0098	.0595**	-.0196	-.0155	-.0516*	-.0603**	-.0816*	-.0126	.0141	.0389	-.0861**	.1339**	1.0000	
18	-.0493*	.0283	.0420	-.0754**	.0286	.0446*	-.0259	-.0820**	-.1066**	-.0473*	-.1041*	-.0032	.0180	.0653**	-.1503**	.2302**	.6061**	1.0000

Remark : 1. Sex 2. Age 3. Marital Status 4. Economic Status 5. Work Period
 6. Education 7. Job 8. Work Environment 9. Health Education
 10. Stress 11. Fatigue 12. Knowledge Level 13. Practice Level 14. K-P Level
 15. Behavior on Health Life 16. Absence 17. Hospital Visiting 18. Pharmacy Visiting

Table 2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KP Level and General & Mentality Variables

Variable	B	SE B	Beta	t	Sig.
EDU (X_1)	-.036250	.015669	-.053820	-2.313	.0007
SEX (X_2)	.109111	.010019	.027891	10.890	.0000
WOP (X_3)	.063101	.012722	.108922	4.960	.0000
MAR (X_4)	-.087860	.008419	-.031714	-10.447	.0000
AGE (X_5)	.001153	.000467	.007739	2.469	.0188
(Constant)	3.182640	.281237		11.317	.0000
R ²		.07329			
F		6.65573			
Signif. F=		.0000			
SWE (X_1)	-.065166	.030707	-.005125	2.167	.0007
SHE (X_2)	.143585	.062249	.055277	2.307	.0002
SJF (X_3)	.154477	.035026	.105925	4.410	.0000
(Constant)	3.111917	.272080		11.438	.0000
R ²		.06410			
F		8.29880			
Signif. F=		.0000			

Remark; WOP=Work Period

SWE=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SHE=Satisfaction with Health Education

SJF=Satisfaction with Job Fitness

KP=Knowledge & Practice

PRA=Practice

KNO=Knowledge

MAR=Marital Status

2) 健康行爲와의 相關性

健康行爲에 寄與하는 一般特性 變數는 教育水準이 $\beta = .118380$, 年齡이 $\beta = -.086498$, 性別이 $\beta = -.020682$, 結婚狀態가 $\beta = -.006688$ 로 寄與했다. 이들 變數의 說明力은 11.8%였다.

Table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從屬變數인 健康行爲 (y)에 대한 獨立變數인 一般特性 (X_i)과의 관계는 $y = 4.15 + 0.052X_1(\text{EDU}) - 0.381X_2(\text{SEX}) + 0.116X_3$

(MAR) - 0.008 $X_4(\text{AGE})$ 로 나타났으며 各 獨立變數의 기울기 B 痠과 常數 a 痠은 統計的으로 有意했다 ($p < 0.001$).

健康行爲에 寄與하는 保健知識 및 實踐水準 變數는 保健 KP 水準은 $\beta = .939961$, 知識水準은 $\beta = .020940$, 實踐水準은 $\beta = .016034$ 였으며 說明力은 8.1%였다.

Table 25. Multiple Regression of Health Behavior and General Variables & KP Level

Variable	B	SE B	Beta	t	Sig.
EDU (χ_1)	.051984	.008141	.118380	6.386	.0000
SEX (χ_2)	-.03812	.043275	-.020682	-8.81	.0000
MAR (χ_3)	-.01161	.045704	-.006688	-4.24	.0000
AGE (χ_4)	-.007789	.002474	-.086498	-3.149	.0007
(Constant)	4.154745	.142960		29.062	.0000
R ²		.11813			
F		26.09035			
Signif. F=		.0000			
KP (χ_1)	.058589	.014373	.939961	4.076	.0000
PRA (χ_2)	.012050	.018221	.016034	6.611	.0000
KNO (χ_3)	.009933	.011560	.020940	8.591	.0000
(Constant)	3.976284	.101508		39.172	.0000
R ²		.08050			
F		6.70005			
Signif. F=		.0002			

Remark; WOP=Work Period

KP=Knowledge & Practice

SWE=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PRA=Practice

SHE=Satisfaction with Health Education

KNO=Knowledge

SJF=Satisfaction with Job Fitness

MAR=Marital Status

IV. 要約 및 結論

본研究는 勤勞者를 위한 產業保健政策과 保健教育 프로그램 및 資料開發의 基礎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韓國의 產業場 勤勞者들의 健康에 대한 知識 및 實踐水準과 健康行爲水準을 把握하고 이에 影響을 미치는 여러 要因과 이들 要因이 健康水準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京畿, 仁川, 光州, 大田, 大邱, 蔚山, 浦項, 馬山,

昌原 등 8개 地域의 產業場에서 標本抽出된 3,396 명의 勤勞者를 對象으로 하였으며 產業場을 直接 訪問하여 保健管理者의 協調를 얻어서 勤勞者에 대한 調査를 實施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產業現場의 勤勞者들은 保健에 對한 知識水準이 낮을 뿐 아니라 健康行爲水準도 낮으며 알고 있는 知識이 實踐으로 移行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큰 問題로 나타나 知識이 實踐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開發과 施策樹立에 產業場, 關聯專門家, 關聯團體 그리고 政府當局의 關心을 가지고 積極的으

로相互協調努力해야 할 것이다.

健康行爲水準을 點數化했을 때 100點 滿點에 50
點 미만으로 一般的으로 勤勞者들의 健康行爲水準이
상당히 낮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健康行爲가 習慣화
되도록 하여 勤勞者의 健康을 확보하므로서 產業勤
勞者들이 幸福한 家庭, 健康한 産業場 그리고 健康
한 社會의 一員이 되고 나아가 國家와 産業平和에
寄與하므로서 福祉國家 建設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参考文獻

1. 이승환. 韓國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을 위한 集團 產業保健管理, 中小企業을 위한 產業保健管理에 관한 國際學術會議, 大韓產業保健協會, p.71, 1993.
2. 남칠현. 業種別, 規模別 事業場 勤勞者의 健康保護 및 增進모델開發에 관한 연구, 慶山大學校 保健環境研究所, pp.5-10, 1993.
3. 박영식, 조수열, 남칠현. 勤勞者의 產業保健 知識과 態度에 關한 研究, 韓國環境衛生學會誌, 18(2), pp.3-18, 1991.
4. 이승환, 심재철, 조규상. 勤勞者의 產業保健에 關한 知識과 態度, 韓國產業醫學實踐, 17(2), pp.41-53, 1978.
5. 韓國產業安全公團. 安全保健 8월호, 1991.
6. 韓國의 產業保健實態, 勞動法律 11월호, p.95, 1992.
7. 韓國產業安全公團. 安全保健情報, 4(1), p.2, 1994.
8. 勞動部. 上揭書, p.254, 1993.
9. 이경종. 勞動組合의 產業安全保健活動에 關한 實態 調查, 勤勞福祉公社 中央病院附設 職業病 研究所, p.1, 1990.
10. Borgotta E.F.. Sociological Methodolog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Jossey-Bass INC., pp.6-30, 1971.
11. Anderson, C.L.. Health Principles and Practice, The C.V. Mosby Company, pp.5-12, 1967.
12. James, George. "Effective Community Health Service", Public Health Concepts in Social Work Education Proceedings of Seminar, Princeton University, Mar.; 1962.
13. Mechanic, David. "Health and Illness in Technological Societies", Studies, 1(3) Institute of Society, pp.7-9, 1973.
14. Turner, C.E.. School Health and Health Education, pp.5-10, 1979.
15. Rogers, E M., With Floyd F. Shomaker. "Communication of Innovations", A Cross-Cultural Approach, New York, The Free Press, pp.255-260, 1971.
16. 조규상. 產業保健學, 壽文社, pp.108-115, 1991.
17. Rahe, P.H., Myer, M., Smith, M., Kjaer, G., Holmes, T.H.. Social Stress and Illness Onset, J. Psy. Res., 8, pp.35-44, 1984.
18. Tutone, R.M.. Correlation of Illness Susceptibility. Brit. J. Pay., pp.79-86, 1977.
19. Theorell, T. and Rahe, R.H.. Psychosocial Factors and Myocardial Infarction I, An Inpatient Study in Sweden, J. Psy. Res., 15, pp.25-31, 1971.
20. Ttman, R.. What Makes Life Events Stressful? A Retrospective Study of Patients who have suffered a first Myocardial Infarction, J. Psy. Res., 23, pp.193-201, 1979.
21. Jalowiec, A. and Powers, M.J..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s. Res., 30(1), pp.10-15, 1981.
22. 강두원. 家庭環境 學業成就 心理的 스트레스의 관계,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論文集, pp.54-59, 1989.
23. 김방자. 產業體 特別學級 여학생의 스트레스 要因과 對處 方案, 慶北大學校 保健大學院 論文集, pp.14-18, 1987.
24. 남칠현. 農漁村 住民의 吸煙 및 飲酒에 影響을 미치는

- 諸要因分析, 韓國保健教育學會誌, 6(1), pp.48-59, 1989.
25. 김일순 등. 바른健康生活 第9輯, 保健社會部, 1989.
 26. 권이혁. 最新保健學, 壽文社, pp.367-370, 1993.
 27. 한중호, 남철현. 都市地域 住民의 運動實態와 關聯要因, 韓國學校保健學會誌, 4(2), pp.68-83, 1991.
 28. 保健社會部. 바른健康生活 第6輯, pp.20-25, 1986.
 29. 이원철. 產業場의 保健教育, 韓國의 產業醫學, 31(2), pp.27-36, 1992.
 30. Girdano, Daniel A.. Occupational Health Promotion, A Practical Guide to Program Develop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6.
 31. 남철현 등. 保健學原論, 癸丑文化社, pp.36-38, 1994.
 32. 남철현 등. 人口 및 保健指標 및 統計, 韓國人口保健研究院, pp.5-8, 1984.
 33. Tones, K, S. Tilford, Y.K Robinson. Health Educatio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London, Chapman & Hall, 1990.
 34. F. Jerome. The Approache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Prevention, VII World Congres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p.439-443, 1993.
 35. Waion Pho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Prevention in Australia, XIII World Congres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p.443-444, 1993.
 36. 조규상. 產業保健學, 壽文社, 1991.
 37. 이승한 외. 中小企業의 產業保健에 關한 知識, 態度, 實踐, 韓國의 產業醫學, 16(2), pp.69-83, 1977.
 38. 박용주. 一部 產業場 勤勞者의 安全 및 保健에 關한 KAP 研究, 高麗大醫學科 博士學位論文, 1990.
 39. 고남준. 安全教育의 實際, 大成安全教育社, 1986.
 40. 方順同. 教育評價, 法文社, pp.168-173, 1979.
 41. Conlund, N.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Teaching, Macmillan Publishing Co. Inc., pp.79-134, 1976.

< Abstract >

An Analysis on Factors related to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of Industrial Workers in Korea

Chul Hyun Nam* · Sang Bok Choi**

(*Kyung San University, **Taegu Junior Health College)

This study conducted from September 1 through October 30, 1993, in order to provide the data related to the industrial health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program and the basic foundation.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in order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knowledge and practice(KP) on health level of industrial workers.

3,396 worker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Kyungki, Inchun, Kwangju, Taejon, Taegu, Ulsan, Pohang, Masan and Changwon, Questionnaire forms were prepared and the personnel selected were interviewed by a graduate student with the aid of health management.

As mentioned before, it was a serious problem that the industrial workers got the fairly low score of health KP and they did not practice what they kn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workers practice what they know and cooperate with related specialists, the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erefore we must ensure the good health of workers through a healthy home life, and a healthy work place and environment. Furthermore this will contribute to industrial peace and the development of korea.